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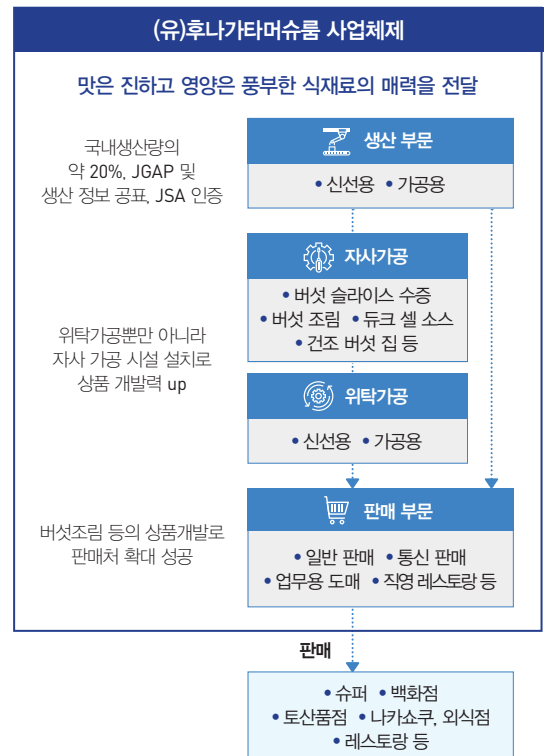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6차 산업

6차 산업¹⁾이란 1차 산업인 농어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소매업 등의 융복합으로 농어촌의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의 다각화구조이다. 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의 주도하에 농어촌의 소득 향상 및 고용확보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사업으로 6차산업화의 움직임은 활기를 띠고 있다.

6차 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촌 레스토랑, 생산품의 브랜드화 등의 '지역융합 아그리비즈니스'²⁾, 새로운 여가활동에 맞춘 수확체험, 농가민박, 그린관광 등의 '차세대 투어리즘', 지역소개 등 고향 이주 희망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향 귀농 산업'이 있다.

1) 6차 산업(산업 융합 도모로 신가치 창출) =
1차(농림 · 어업) × 2차(공업) × 3차(상업)

2) 아그리비즈니스: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활동 전체를 일컬음



6차 산업 성공 사례

▶ 눈으로 놀라고 맛으로 한 번 더 놀라는 점보버섯

아마가타현에 소재한 유한회사 후나가타마슈룸은 직접 생산한 버섯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신선한 버섯을 공급한다.

2007년부터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료로 카레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주위 인맥을 활용해 판매했으며, 규격 외의 상품을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2011년 가공시설을 정비해 상품 제조를 개시했다.

그 결과 매출액은 2010년 2억 5천만 엔(약 26억 6,900만 원)에서 2016년 10억 9천만 엔(116억 4,300만 원)으로, 비정규직 포함 고용자 수는 2001년 8명에서 2016년 125명으로, 버섯재배 규모는 2001년 12동에서 2016년 61동으로 증가했다.

| 점보버섯 및 버섯을 활용한 가공식품 |



직경 15cm 이상인 초슈퍼 점보마슈룸



버섯맛을 느낄 수 있는 후나가타마슈룸 카레

▶ 바다의 6차 산업, 감동 받을 생선을 소비자에게!

이시가와현에 소재한 주식회사 가고시마테이치는 신선유지의 선진기술을 활용해 생선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말린 생선을 만드는 가공업도 병행하고 있다.

매년 어획량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 조임(생선을 뇌사상태로 만들기 위해 조이는 방법)' 등 신선도 유지에 관한 선진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어획한 생선을 직접 가공·판매하는 6차 산업화를 기획해 2012년부터는 가공시설 및 가공식품 판매소인 '생선 공방 숲'을 열어 판매활동을 확대해 나갔다. 매출은 2012년 1억 2천만 엔(약 12억 8,300만 원)에서 2016년 1억 2,200만 엔(약 13억 43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평균연령 35세의 젊은 취업자들이 현지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가고시마테이치에서 판매 중인 가공품 |



캥생이모자반



코노시로 스츠케
[전어 식초 절임]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

6차 산업화 서포트센터는 6차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를 위한 상담창구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품 개발에서 경영·마케팅·사업계획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도·조언을 제공한다. 6차 산업화 플래너 파견도 실시하고 있는데, 가공 및 유통, 위생 관리 등 6차 산업화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파견으로 6차 산업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인증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및 조성금을 지원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차 산업화법 및 지사자소법에 의한 '종합화 사업 계획'을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Key Point

선진 비즈니스 모델 벤치마킹해 육성

- 6차 산업화는 농가 소득 향상, 고용 창출, 지역 공동체 및 전통문화 보존, 지역 활성화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고액 투자, 엄격한 위생관리,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등의 불가결 조건이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필요조건을 충족한다면 농가 소득향상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다양한 국가의 6차 산업화 선진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6차 산업 플래너 등의 전문가를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